

##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 및 우울관련요인의 차이

이 인 정

(덕성여자대학교)

일상생활 의존으로 자녀의 수발을 받는 것은 노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녀에게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과 우울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유형의 대표적인 자녀 수발자인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수준,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패널 자료에서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293명을 표본으로 확보하여 기술적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게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은 높았으며 특히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우울수준과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둘째,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이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았고 자녀와 별거하는 비율은 높았다. 셋째,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넷째,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노인의 심각한 일상생활 의존이 우울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주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 대해 우울취약집단으로 관심을 가질 것, 심각한 일상생활 의존과 우울증의 높은 관련성에 유의할 것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활성화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노인이 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 등이 우울방지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우울수준이 높은 딸 수발 노인의 경우 조절효과를 갖는 변수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측정을 정교하게 하고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검증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주요용어: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 딸 수발대상 노인, 우울, 일상생활 의존, 사회적 지지

본 연구는 2012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투고일 2013.10.29    ■ 수정일: 2013.12.9    ■ 게재확정일: 2013.12.16

## I. 서론

인구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그에 따라 간병이나 일상생활에서 수발을 요하는 노인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고령사회로 가고 있으며 기능손상이나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령 노인과 초고령 노인의 증가도 두드러져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이 더 이상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일차적으로 가족이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노인 재가 복지에서 앞서 있는 서구에서도 가족이 공적 서비스보다 노인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며 가족 수발자가 없다면 많은 노인들이 지역사회를 떠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we et al., 2006). 노인을 돌보는 가족 성원은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수발 책임을 수행하는 주 수발자 역할을 맡게 된다. 노인에 대한 주 수발자를 정하는 데는 일종의 대체원리가 적용되어 배우자가 존재하고 수발을 감당할 수 있으면 배우자가 그 역할을 맡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수발을 맡을 상태가 아닌 경우 자녀에게 그 역할이 돌아간다. 배우자가 수발을 맡을 때보다 자녀가 수발을 맡을 경우에 세대 차이가 존재하고 애정적 유대의 친밀함이나 역사가 짧아서 상황이 더 어렵고 부담이나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배우자가 주 수발자 역할을 맡는 것은 서구와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자녀가 수발을 맡게 되는 경우에 문화적 차이가 존재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며느리가 노인에 대한 주 수발자의 역할을 맡아온데 반해 서구에서는 딸이 주 수발자 역할을 맡는다(최정혜, 2009; Shuey & Hardy, 200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는 자녀 가운데 딸이 노인에 대한 주 수발자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인에 대한 가족의 수발에 포함된 두 주인공은 주 수발자와 수발대상 노인으로 그동안 노인 가족수발에 관한 연구는 주 수발자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왔다. 즉,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요하는 노인을 수발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경험하는 부담과 우울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존재하는 반면 수발대상 노인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Kuzuya et al., 2011; Lyons et al., 2002). 노인은 가족이 수발을 맡아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겨진 가운데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주 수발자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Pruchino 외(1997)에 의하면 노인 가족수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가족으로부터 수발받는 것이 노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과했으며 그 결과 '수발받는 어려움에 대한 노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 가족수발에 관한 연구가 수발자에 집중된 이유로 치매나 인지적 기능손상이 있는 노인을 돌보는 경우 심각한 부담과 우울을 가져오기 쉬워서 이를 덜어주기 위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지적 문제가 있는 노인들로부터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것도 노인보다 수발자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심각한 인지적 문제가 없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수발이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노인의 수가 훨씬 많으며 이에 따라 수발대상 노인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이 수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서구에서 이루어진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것은 노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rown, 2007; Suiter et al., 2012). 역할전도(role reversal)와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는 인식은 흔히 노인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 외 일상생활 의존으로 인한 사기저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 등을 겪을 수 있어서 노인이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대가는 주로 정서적 차원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Walker et al., 2002).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동안 노인 가족 수발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된 수발대상 노인 - 그중에서도 수발 상황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 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녀 수발자의 유형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주 수발자 역할을 맡아 온 며느리와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는 딸이 수발하는 노인으로 세분하여 우울수준과 우울관련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Brown(2007)에 의하면 주 수발자 유형은 수발대상 노인의 심리적 어려움의 차이를 가져오며 따라서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며느리보다 딸이 주 수발자인 경우가 많고 수발대상 노인의 선호와 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Peter-Davis et al., 1999)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 수발자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해서 다른 결과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기존의 노인 가족수발에 관한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첫째,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관심 대상이 되어 온 수발자가 아니라 수발대상 노인의 우울 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노인에게 스트레스나 우울이 낮은 수발 상황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누가 주 수발자를 맡는가에 관한 것으로 본 연구는 자녀 수발자 가운데 며느리와 딸 중 누구에게 케어를 받을 때 노인의 우울수준이 더 낮은지,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차이에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293명으로 이루어진 전국 규모의 표본을 사용하여 두 집단에서 수발대상 노인의 일상생활 의존정도, 사회적 지지, 개인적 특성 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고령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요하는 노인이 점점 더 증가하고 그에 따라 주 수발자 역할을 맡는 자녀들도 증가할 텐데 자녀 가운데 주 수발자의 역할을 맡기 쉬운 며느리와 딸 중 누구에게 수발 받을 때 노인이 더 심리적으로 행복/우울한가, 또 우울관련요인은 어떤 것들이나 조사하는 것은 노인수발(caregiving)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수발하는 자녀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반면 수발받는 노인의 경험은 주목받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자녀 수발자와 수발 대상노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 큰 간격이 존재하게 되었다(Suitor et al., 2012). 그 결과 이제까지 이루어진 노인수발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주 수발자를 맡은 자녀들이 우울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부각된 반면 수발 대상 노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마치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요하는 상태에 있더라도 인지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적절한 주 수발자가 있으면 우울 등 어려움 없이 잘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된 경향이 있다(Kuzuya et al., 2011). 또한 많은 노인 가족수발에 관한 연구들이 수발대상 노인을 표본으로 확보하거나 인터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발자로부터 노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가들은 수발대상 노인에 대한 평가와 케어에 대한 결정을 흔히 수발자의 의견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수발자와 수발대상 노인 간에 수발 상황, 노인의 상태 등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높으며 따라서 인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 의존노인을 면접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정확하게 조사한 연구나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Lyons et al., 2002).

수발대상 노인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들에서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것은 노인의 우울과 관련되는 것이 확인되었다(김윤정 · 최혜경, 2001; Suito et al., 2012; Silverstein et al., 1996). 즉,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들은 자신의 의존적인 상태와 역할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거나 자녀가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의존적으로 대한다고 여기며 자녀의 수발이 부적합하거나 기대에 충족하지 않다고 느끼는 등 다양한 부정적 감정으로 우울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Pruchino et al., 1997). Brown(2007)도 노인이 기능손상으로 자녀에게 수발받는 것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가운데 자녀와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 도움을 받는 것과는 다른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것이 수발대상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노년기 우울의 중요한 요인인 기능손상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건강문제 요인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미하였다(Lee & Sung, 1995).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 수발자의 유형에 따른 수발대상 노인의 우울의 차이를 확인한 연구들도 있다(Brown,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을 조사하되 자녀 수발자의 유형에 따라 수발대상 노인의 우울이나 심리적 어려움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에 입각해서 대표적인 자녀 수발자인 며느리 수발자와 딸 수발자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과 우울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 차이

Suito(2012) 등은 최근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여성 노인의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주 수발자로 선호하는 자녀가 존재하며 실제로 이 자녀가 수발을 맡았는지 여부가 수발대상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된 Carstensen(1992)의 사회정서적 선택이론에 의하면 노인이 연로할수록 자신에게 만족스럽고 도움이 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렇지 않은 관계로부터 후퇴하며 특히 자녀로부터 수발 받을 상황이 되면 가장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초래할 위험이 적은 자녀를 주 수발자로 원한다. 이 이론에서 제시된 노인이 특정 자녀를 주 수발자로서 선호하게 되는

기준은 가치관과 경험의 유사성, 지지적 관계의 유지, 가족 내에서 지지적 역할의 수행과 같은 사회정서적 특징이다(Suitor et al., 2012). 이것은 노인이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자신이 안심할만한 지지의 근원을 확보하고 기대에 못 미치거나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관계를 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실제로, 수발상황에서 조화롭고 지지적인 관계는 노인의 심리적 만족을 증가시키는 반면 충족되지 못한 기대와 갈등의 존재는 노인에게 높은 우울을 가져온다(Gallant et al., 2007). 요컨대, 노인이 주 수발자로 원하는 자녀가 확실히 존재하며 이러한 선호에 일치하지 않는 자녀가 수발을 맡은 경우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자녀에 대한 문화적 기준은 딸이며 이에 따라 노인의 주 수발자 역할은 주로 딸에 의해 수행된다(Suitor et al., 2012; Merrill, 1997).

서구의 몇몇 연구에서 며느리 수발자는 딸 수발자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발대상 노인과 유대가 약하고 긴장이나 갈등을 경험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eter-Davis et al., 1999). 첫째, 노인과 며느리 수발자는 혈연적 유대가 없는 반면 노인과 딸 수발자는 혈연적 유대로 연결되어 있다. Rossi와 Rossi(1990)에 의하면 혈연적 유대는 결혼으로 형성된 관계보다 더 친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훨씬 더 큰 자발적 책임감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노인과 며느리 수발자는 전 생애에 걸쳐 형성된 정서적 결속이 없는 반면 딸 수발자는 태어나서부터 서로에게 중요한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왔으며 생애에 걸쳐 쌓은 정서적 결속이 존재한다. 셋째, 노인과 며느리의 관계는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들의 결혼을 통해 형성되었으므로 둘 사이에 아들이 존재하고 때때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다. 반면에 노인과 딸은 중간에 더 긴밀한 다른 사람의 존재가 없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구에서는 며느리보다 딸에 대한 주 수발자로서의 선호도가 높고 그 결과 며느리에 의한 수발보다 딸에 의한 수발이 더 많으며 노인도 딸로부터 수발받는 것이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Peter-Davis et al., 1999). 그러나 며느리 수발자가 주 수발자로서의 인식이나 경험에서 딸 수발자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노인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다(Merrill, 1997).

한국 사회는 노인에 대한 성인자녀의 수발에서 서구와 차이가 있다. 유교적 가치관과 ‘효’사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노부모에 대한 수발은 성인자녀들에게 더 보편적인 경험이었고 이러한 역할은 아들 - 그 중에서도 장남 - 부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Park et al., 2005). 따라서 전통적으로 노인이 아들(특히 장남)과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에 대한 수발은 자연스럽게 집안일과 식구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며느리의 몫이었다(최정혜, 2009). 이와 같은 맥락에서 며느리는 시가에 대한 소속감과 결속이 서구보다 강하고 시부모의 수발에 대한 며느리의 책임감은 문화적 규범으로 존재해 왔다. 비록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노부모를 수발하는 자녀의 책임도 약화되었으나 한국 사회에서 노인이 아들과 며느리를 자녀 수발자로서 선호하는 전통은 아직도 남아 있다(Park et al., 2005). 따라서 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요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아들의 존재와 며느리의 주 수발자로서의 역할수행은 노인의 심리적 만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Lee & Sung, 1995). 다시 말해서, 비록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문화적 규범에 일치하게 딸이 아니라 며느리가 노인의 수발을 맡을 때 노인이 더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편안할 수 있다(Park, 2005).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부모와 며느리의 사이는 소원하거나 갈등이 존재하기 쉽고(Peter-Davis et al., 1999)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며느리에 의한 노인 수발의 고정관념이 감소하면서 서구와 유사하게 사회정서적 특징과 혈연적인 유대를 따라 딸이 주 수발자로서의 역할을 맡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논한 선행연구에 입각해서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어려움 - 우울 - 의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즉, 혈연적 유대에 따라 딸이 주 수발자 역할을 맡는 서구(최정혜, 2009)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이 더 낮은지, 아니면 아들 중심의 노인 부양에 대한 문화적 규범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며느리에 의해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이 더 낮은지 검증하고자 한다.

### 3.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관련요인 차이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노인의 일상생활 의존 정도, 사회적 지지, 노인의 개인적 특성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주 수발자가 며느리인 경우와 딸인 경우를 구분해서 두 집단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수발대상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수발대상 노인의 건강상태 또는 일상생활 의존정도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노인의 심각한 일상생

활 의존으로 수발에 대한 요구가 클수록 사기가 저하되고 미래에 대해 낙담하는 등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Peter-Davis et al., 1999; Walker et al., 2002). 노인과 수발자 간의 친밀한 관계는 노인의 기능손상에 대한 양편의 낮은 부정적 반응과 관련되므로 심각한 일상생활 의존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혈연적 관계와 오랜 정서적 유대를 가진 딸이 수발하는 노인에서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보다 더 낮을 수 있다(Carpenter, 2001). 그러나 주 수발자가 문화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도 기능손상에 대한 노인의 낮은 부정적 반응과 관련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딸보다 며느리에 의해 수발받는 노인에서 심각한 기능손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낮을 수 있다(최정혜, 2009).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노인의 기능손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녀 수발자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으로부터 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노년기 심리적 웰빙이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Diwan, 2004; Krause, 2004; 2005). 구체적으로 수발상황에서 가족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지지 - 일상생활 의존으로 인한 노인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 이해, 위로, 격려를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와 집안일이나 수발에 실제로 필요한 일손을 제공하는 도구적 지지 - 는 노인의 전반적인 심리적 웰빙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Lee et al., 2003). 이러한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뿐 아니라 노인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느끼는 만족과 같은 주관적 차원도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교환이론에 의하면 수발대상 노인과 자녀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상호 관계에 대한 만족은 수발 상황으로 인해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에 영향을 미쳐서 관계에 대한 만족이 낮을수록 양 편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지고 이에 따라 우울도 증가한다(Lyons et al., 2002; Walker et al., 2002).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존재하면 전반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건강이 향상되는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도 중요하지만, 노인의 일상생활 의존이 심각한 경우에 그로 인해 심한 우울이 초래되는 것을 중간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매우 중요하다(Park, 2009; 엄태완, 2007).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광범위한 노년기 문제가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감소시켜 주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Lee, 2009; Jang, 2002; Krause, 2004). 본 연구는 일상생활 의존으로 며느리에 의해 수발받는 노인과 딸에 의해 수발받는 노인에서 사회적 지지의 우울에 대한 주효과, 그리고 일상생활 의존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차원이 두 집단에서 수발대상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그 외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노인의 주관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수발대상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된 노인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수는 매우 적었으며 이에 따라 가족 가운데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근원은 자녀여서 자녀(동거·비동거)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두 가지 유형 가운데 노년기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정서적 지지가 노인의 일상생활 의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큰 지 아니면 수발에 관련된 힘든 일들이 수반되므로 도구적 지지의 효과가 큰 지도 살펴보았다(Krause,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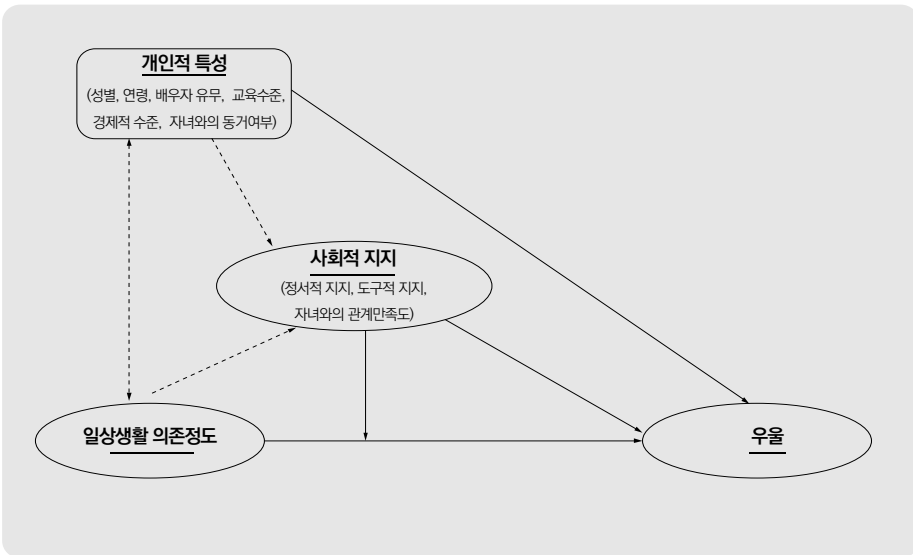
노인의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자녀 수발자와 동거 여부)은 수발대상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면서 수발받는 것은 노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Pruchino et al., 1997). Walker 등(2002)은 노인이 의존적 상태로 인해서 자녀의 수발을 받더라도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우울이나 사기저하를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통적으로 노인이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문화적 규범으로 존재했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할 수 있다. 낮은 경제적 수준은 일관성 있게 노년기 우울과 관련되는 것이 확인되어 왔으므로 며느리나 딸이 수발하는 노인 집단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Brown, 2007; Kuzaya et al., 2011). 그밖에 노인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 수준 등도 수발대상 노인의 우울과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수발에 관련된 변수들이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을 받는 노인의 우울에 영향력을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에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에 입각해서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확립되었다. 본 연구는 모형에서 설정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 대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그림 1.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들의 우울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모형<sup>1)</sup>



위에 제시된 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가 설정되었다.

- 1)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간에 우울수준, 일상생활 의존정도, 사회적 지지(동거·비동거 자녀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자녀 동거 여부)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 2)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 3)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간에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가? 특히 두 집단에서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에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 2. 표본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패널은 2008년도에 16개 시·도 60세 이상노인을 대상으로 구축된 패널의 후속 조사로 총 11,542명의 노인을 포함하고 있다. 표본추출은 서울 및 광역시 7개, 도지역 동·읍면 18개 등 총 25개 지역에서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층화 2단 집락추출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은 조사대상가구와 노인의 특성, 자녀를 비롯한 비공식적 관계의 현황과 부양실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경제 상태와 경제 활동, 여가 및 사회 활동,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노년기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등 노년기 삶의 중요한 차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자료수집 방식은 조사원이 각각의 표본 가구를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노인은 2011년 노인실태조사 패널에 포함된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여 며느리나 딸로부터 수발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일상생활 의존 노인의 수는 많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을 선택한 결과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157명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136명 등 총 293명을 확보할 수 있었다.

### 3. 측정

종속변수는 우울이며 기백석(1996)이 Sheikh & Yeasavage(1986)의 단축형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GDS-SF)를 한국 노인에 맞춰 표준화한 한국판 단축형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Kore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Alpha=.89). 이 척도는 우울을 판단하기 위한 15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한 후 합산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15점까지 분포한다. 이 척도를 우울증에 대한 임상적인 진단에 사용할 경우 6~10점은 우울 의심, 11점 이상은 우울증으로 판단된다.

일상생활 의존 정도는 Katz(1993)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와 독자적으로 생활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10개를 합친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였다(Alpha=.94). 각각의 항목에 대해 도움이 필요 없다,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세 차원에서 선택하게 한 후 합산하였으며 합계 0점에서 34점 사이에 분포한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동거·비동거 자녀가 노인의 어려움에 대해 제공해주는 상담(정서적 지원)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가운데 선택하게 하였으며 1점-4점에 분포한다(Alpha=.81). 도구적 지지는 동거·비동거 자녀가 두 항목 - 식사준비·세탁·청소 등 집안 일과 간병수발·병원도움 등 수발관련 일 - 에 대하여 제공하는 도움의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가운데 선택하게 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고 1점-4점에 분포한다(Alpha=.84).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노인이 자녀와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매우 만족'까지 다섯 수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단일항목척도에 의해 측정되었다.

노인의 개인적 특성은 성별(남, 여), 노인의 연령은 만 나이를 취하였다. 교육 수준은 '무학(글자 모름)', '무학(글자 해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전문대 포함)' 중 하나로 응답하게 하였다. 경제적 상태는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재정적인 형편으로 '귀댁의 생활수준을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중 해당하는 범주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배우자 유무(없음, 있음), 자녀동거 여부(별거, 동거)도 포함되었다.

####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1version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모든 변수에 대해 기술적 분석이 실시되었고 척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측정되었다. 연구문제 1에서 며느리 수발자에 의해 수발받는 노인과 딸 수발자에 의해 수발받는 노인 간에 우울수준, 일상생활 의존정도, 사회적 지지,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chi-검증, t-검증이 실시되었다. 연구문제 2에서는 우울수준을 종속변수, 일상생활 의존정도를 독립변수, 노인의 개인적 특성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하여 두 집단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문제 3은 두 집단에서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사용된 일상생활 의존정도, 노인의 개인적 특성 변수들에 사회적 지지,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를 더 넣어 회귀분석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은 세 차원(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유의미한 상호작용 변수에 대해서는 조절변수와 독립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집단에서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우울 점수를 표시하는 그래프를 그려 기울기를 비교함으로써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House, 1981).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서는 상관관계 분석과 더불어 회귀분석 시 tolerance와 VIF를 점검하였다. tolerance는 두 집단에서 모든 독립변수들이 .72-.90 사이에 분포하였고 VIF는 1.111-1.38 사이에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빈왓슨 값은 두 집단에서 각각 1.99와 1.83으로 2에 가까운 값이므로 VIF의 독립성도 검증되었다.

## IV. 분석결과

### 1. 노인의 개인적 특성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두 집단에서 다 여성노인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지만 딸이 수발하는 노인의 여성 비율(89.0%)이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의 여성 비율(78.3%)보다 다소 높다. 이와 같이 표본에서 여성 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자녀로부터 수발 받는 노인의 경우 연로한 노인이 많은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연령분포를 보면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집단에서 85세 이상 39.5%, 75~85세 49.7%, 65~74세가 10.8%이고 딸이 수발하는 노인집단에서 85세 이상 30.1%, 75~84세 51.5%, 65~74세가 18.4%로 두 집단 다 75세 이상 고령노인이 대부분이고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의 비율도 높다. 두 집단의 연령분포를 비교해보면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이 딸이 수발하는 노인보다 다소 연로하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두 집단에서 다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매우 낮았고 대부분의 노인(85% 정도)이 배우자가 없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상생활 의존노인의 경우 수발을 감당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주 수발자 역할을 맡았을 것이므로 자녀로부터 수발을 받는 노인들은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수발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경우 별거 22.3%, 동거 77.7%인데 반해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경우 별거 53.7%, 동거 46.3%이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며느리가 수발하는 경우 대부분 노인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수발을 제공하는 반면, 딸이 수발하는 경우 주 수발자의 역할을 맡더라도 따로 살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아들(특히 장남)의 가족과 함께 사는 문화적인 노인부양 규범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수준에서는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과 딸이 수발하는 노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 매우 낮다 9.9%, 낮은 편이다 34.0%, 높은 편이다 7.8%의 비율로 응답한데 반해서 딸이 수발하는 노인의 경우 매우 낮다 20.7%, 낮은 편이다 41.3%, 높은 편이다 1.7%의 비율로 응답해서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보다 딸 수발대상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에서 다 경제적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노인은 한 명도 없었다.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무학이 70% 정도이다. 무학이면서 글자 해독을 못하는 노인의 비율이 두 집단에서 다 1/3 이상이며 무학이지만 문자해독을 할 수 있는 비율 역시 1/3 정도이다. 초등학교 졸업이 20%에 가깝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아주 낮아서 표본에 포함된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낮은 편이다.

표 1. 노인의 개인적 특성

	며느리 수발대상노인(n=157)	딸 수발대상 노인(n=136)	$\chi^2$
성별			
남자	21.7%	11.0%	5.91*
여자	78.3%	89.0%	
합계	100.0%	100.0%	
연령 구분			
74세 이하	10.8%	18.4%	4.76+
75~84세	49.7%	51.5%	
85세 이상	39.5%	30.1%	
합계	100.0%	100.0%	
배우자 유무			
없다	84.7%	84.6%	.01
있다	15.3%	15.4%	
합계	100.0%	100.0%	
자녀와의 동거여부			
별거	22.3%	53.7%	30.84***
동거	77.7%	46.3%	
합계	100.0%	100.0%	
경제적 수준			
매우 낮다	9.9%	20.7%	13.07**
낮은 편이다	34.0%	41.3%	
그저 그렇다	48.3%	36.3%	
높은 편이다	7.8%	1.7%	
매우 높다	0%	0%	
합계	100.0%	100.0%	

	며느리 수발대상노인(n=157)	딸 수발대상 노인(n=136)	$\chi^2$
교육수준			1.70
무학 (글자 모름)	36.3%	37.5%	
무학 (글자 해독)	35.7%	34.6%	
초등학교 졸업	18.5%	19.9%	
중학교 졸업	5.1%	5.9%	
고등학교 졸업	3.8%	2.2%	
대학교 졸업	.6%	0%	
합계	100.0%	100.0%	

\*\*\* p<.001, \*\* p<.01, \* p<.05, + p<.09

## 2. 우울수준

<표 2>에서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울 평균점수(15점 만점)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우울 평균점수가 7.49점, 후자의 우울 평균점수는 9.31점이다. 또한 GDS-SF로 우울증을 진단할 때 사용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11점 이상 점수를 받은 비율이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의 30.9%인데 반해 딸 수발대상 노인의 45.8%이다.

표 2. 우울 평균점수 및 우울 평균점수별 분포<sup>1)</sup>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n=139)	딸 수발대상 노인(n=120)	t / $\chi^2$
우울 평균점수	7.49(sd=4.47)	9.31(sd=4.46)	1.87***
우울 평균점수별 분포			
0~5점	40.3%	25.0%	8.31**
6~10점 (우울의심)	28.8%	29.2%	
11점 이상 (우울증)	30.9%	45.8%	
합계	100.0%	100.0%	

\*\*\* p<.001, \*\* p<.01, \* p<.05

1)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 가운데 18명, 딸이 수발하는 노인 가운데 16명이 우울을 측정하는 척도를 구성하는 15개 항목 중에서 답하지 않은 항목이 있어서 결측치로 처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인 10만 명당 25,979명(국민건강보험공단, 2009)에 비해 높은 수치로 특히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점수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반면에, 우울 문제가 없는 0~5점을 받은 노인의 비율은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의 40.3%, 딸 수발대상 노인의 25.0%에 해당해서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우울 문제가 없는 노인의 비율은 더 높았다.

### 3. 일상생활 의존정도 및 사회적 지지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사회적 지지에서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일상생활 의존 정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2점까지 분포하는데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 7.76점, 딸 수발대상 노인 8.26점으로 두 집단 다 일상생활 의존정도는 낮은 편이다. 사회적 지지 가운데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는 4점 만점인데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의 정서적 지지 2.85점, 도구적 지지 3.32점이고 딸 수발대상 노인의 정서적 지지 2.98점, 도구적 지지 3.37점이어서 두 집단에서 다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5점 만점인데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 3.80점, 딸 수발대상 노인 3.69점으로 역시 높은 편이다.

표 3. 일상생활 의존정도 및 사회적 지지의 수준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n=157)	딸 수발대상 노인(n=136)	t
일상생활 의존정도	7.76(sd=4.15)	8.26(sd=5.47)	.56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2.85(sd=.84)	2.98(sd=.89)	.58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	3.32(sd=.60)	3.37(sd=.56)	1.29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3.80(sd=.65)	3.69(sd=.87)	1.27

\*\*\* p<.001      \*\* p<.01      \* p<.05

#### 4.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에 따라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 대해서 개인적 특성 변수들과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개인적 특성 가운데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적 수준( $\beta = -.35, p < .001$ )이다. 즉, 이 집단에서는 노인이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여부( $\beta = -.18, p < .05$ ), 경제적 수준( $\beta = .33, p < .001$ )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이 집단에서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그리고 노인이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았다. 그러므로 노인이 지각하는 경제적 수준은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과 딸 수발대상 노인에서 공통적으로 우울에 관련될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다. 반면에,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표본에 포함된 노인 가운데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은 대부분 자녀와 동거하므로 동거/별거가 별로 의미가 없는데 반해 딸이 수발하는 노인은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반 정도이면서 동거/별거의 차이가 우울수준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개인적 특성 가운데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은 두 집단에서 다 수발대상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일상생활 의존정도는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beta = .16, p < .05$ )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beta = .26, p < .01$ )에서 다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두 집단에서 다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 집단에 대해 비교해 보면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 비해서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그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n=139)			딸 수발대상 노인 (n=120)		
	b	se	beta	b	se	beta
개인적 특성						
성별	-.32	.99	-.03	-1.01	1.21	-.07
연령	-.07	.06	-.11	-.08	.06	-.12
배우자 유무	-.43	1.08	-.04	.55	1.15	.05
자녀와의 동거	1.10	.89	.10	-1.59	.78	-.18*
경제적 수준	-2.04	.48	-.35***	-1.82	.47	-.33***
교육 수준	.17	.37	.04	-.38	.40	-.09
일상생활 의존정도	.15	.08	.16*	.21	.07	.26**
F	3.79**			4.10***		
R-square	.24			.32		

\*\*\* p<.001, \*\* p<.01, \* p<.05, +<.10

## 5.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의 세 차원(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에 대해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과 딸이 수발하는 노인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표 5>에 제시되었다.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우울과 강한 부적 관계를 보여서 (beta=-.38, p<.01)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도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의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5, p<.05). 그러므로 이 집단에서는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더라도 자녀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의 수준이 높으면 우울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서 조절효과를 보여 주었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의 평균을 중심으로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집단에서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우울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일상생활 의존정도에 따른 우울의 평균점수는 <표 6>에 제시되었으며 이를 그래프로 그린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즉,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에서는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으면 우울수준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서는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더라도 우울수준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았다. 딸이 수발하는 노인에서는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우울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beta=-.21, p<.10)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집단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는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표 5.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sup>2)</sup>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n=139)			딸 수발대상 노인 (n=120)		
	b	se	beta	b	se	beta
일상생활 의존정도	.20	.19	.21*	.24	.30	.28*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2.19	.74	-.38**	-1.10	.66	-.21+
일상생활 의존정도 ×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13	.08	-.35*	-.14	.09	-.29
F	4.20***			4.14***		
R-square	.33			.32		

\*\*\* p<.001, \*\* p<.01, \* p<.05, +<.10

표 6.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일상생활 의존정도의 집단 별 우울 평균점수

	정서적 지지가 높은 집단	정서적 지지가 낮은 집단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낮은 집단	6.62(sd=4.41)	8.85(sd=4.47)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은 집단	7.53(sd=4.30)	10.83(sd=3.90)

2)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여부,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일상생활 의존정도,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켜 우울에 대해 회귀분석 하였으나 <표 6>에서는 일상생활 의존정도,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주효과),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의 상호작용(조절효과)만 정리하였다.

그림 2. 어머니 수발노인의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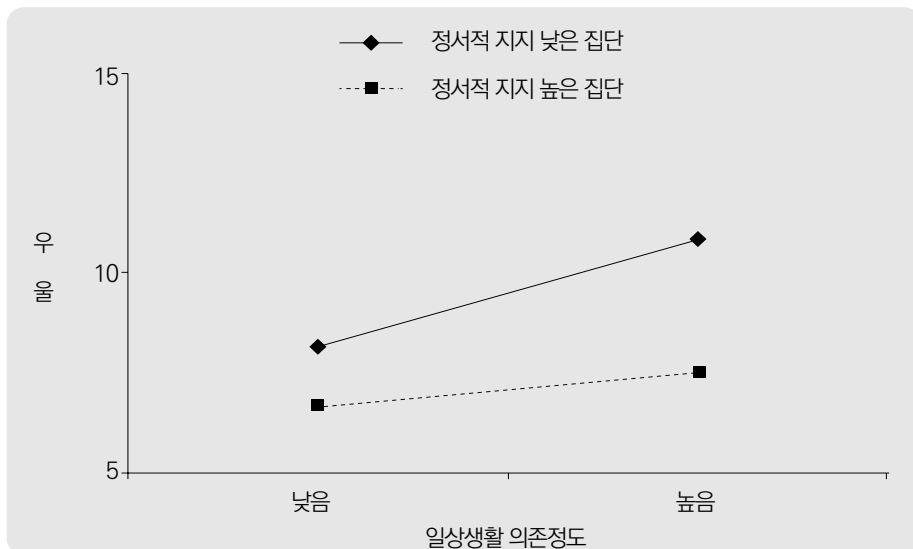


표 7.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가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sup>3)</sup>

	어머니 수발대상 노인(n=139)			딸 수발대상 노인 (n=120)		
	b	se	beta	b	se	beta
일상생활 의존정도	.21	.51	.22*	.43	.50	.32*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	-.67	1.01	-.09	-1.79	1.14	-.12
일상생활 의존정도 X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	-.02	.15	-.06	.19	.15	.23
F	3.89**			3.98**		
R-square	.28			.31		

\*\*\* p<.001, \*\* p<.01, \* p<.05, +<.10

3)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여부,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일상생활 의존정도,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켜 우울에 대해 회귀분석 하였으나 <표 8>에서는 일상생활 의존정도,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주효과),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의 상호작용(조절효과)만 정리하였다.

<표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는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이나 딸 수발대상 노인의 우울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의 상호작용 변수도 두 집단에서 다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는 어떤 집단에서도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8.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sup>4)</sup>

	며느리 수발대상 노인 (n=139)			딸 수발대상 노인 (n=120)		
	b	se	beta	b	se	beta
일상생활 의존정도	.61	.29	.63*	.32	.19	.39*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2.79	.93	-.40**	-2.14	.67	-.43**
일상생활 의존정도 X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19	.12	-.52+	-.06	.07	-.19
F	4.32***			5.60**		
R-square	.36			.34		

\*\*\* p<.001, \*\* p<.01, \* p<.05, +<.10

<표 8>에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 있다.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두 집단에서 다 우울과 강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즉, 며느리 수발 노인(beta=-.40, p<.01)과 딸 수발노인(beta=-.43 p<.01)에서 다 같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은 낮아서 높은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의 상호작용 변수는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집단(beta=-.52, p<.10)에서만 미약한 수준에서 유의미해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평균을 중심으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 집단에서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우울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각 집단 별 우울 평균점수는 <표 9>에 제시되었으며 이를 그래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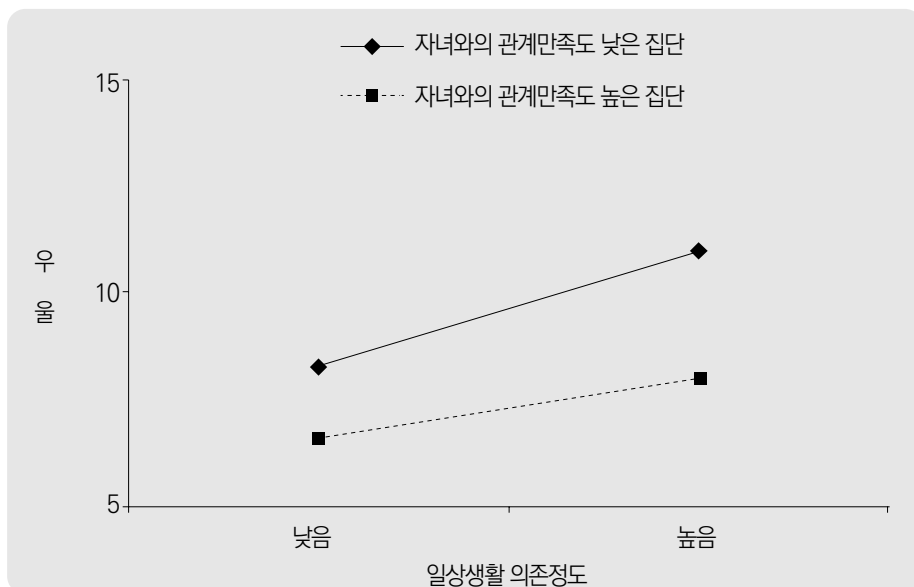
4)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자녀와의 동거여부, 경제적 수준, 교육 수준, 일상생활 의존정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의 상호작용을 포함시켜 우울에 대해 회귀분석 하였으나 <표 9>에서는 일상생활 의존정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주효과),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의 상호작용(조절효과)만 정리하였다.

그린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의하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우울수준이 급격히 높아지지만,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아지더라도 우울수준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딸이 수발하는 노인집단에서는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의 상호작용 변수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9.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와 일상생활 의존정도의 집단 별 우울 평균점수

	관계만족도가 높은 집단	관계만족도가 낮은 집단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낮은 집단	6.42(sd=4.37)	8.39(sd=4.02)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은 집단	8.03(sd=4.19)	11.00(sd=3.57)

그림 3. 며느리 수발노인의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에 대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



## V. 결론 및 함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요하는 노인을 수발하는 자녀의 우울이나 어려움에 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반면 수발받는 노인들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별로 없다. 그러나 서구의 몇몇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것은 노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발대상 노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여 자녀에게 수발받는 노인 293명을 대상으로 우울수준과 우울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노인에 대한 수발을 맡아온 며느리와 최근에 주 수발자로서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을 구분하여 두 집단에 대해서 우울수준,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녀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등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들은 높은 우울수준을 보였다. 또한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 비율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국민건강보험공단, 2009)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높은 우울수준을 보고한 Walker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두 집단을 비교하면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이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우울 평균점수가 높고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 노인의 비율도 월등하게 높았다. 이에 따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이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우울에 더 취약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서구에서 주 수발자로서 딸에 대한 높은 선호와 딸에 의해 수발받는 노인의 낮은 우울을 보고한 Suito 외(2012)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며느리에 대한 주 수발자로서의 규범이 남아 있고 그에 따라 노인이 아들과 며느리에 의한 수발을 선호할 수 있다(Park et al., 2005).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규범에 부합하는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것이 노인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이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경제적 수준 및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낮았고 여성 노인의 비율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특성에서도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이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다 같이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심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았다. 이것은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심각한 ADL과 IADL 손상정도가 우울에 위험요인임을 확인한 선행 연구(Brown, 2007; Pruchino et al., 1997; Walker et al.,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두 집단에서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면 딸이 수발하는 노인에서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보다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혈연적 관계와 친밀한 정서적 유대는 노인의 기능손상에 대한 낮은 반응과 관련되므로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딸에 의해 수발받는 노인에서 더 낮다고 제시한 서구의 연구들(Peters-Davis et al., 1999; Walker et al., 2002)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 수발자에 대한 문화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 일상생활 의존에 대한 노인의 낮은 부정적 반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최정혜, 2009)와는 일치한다. 본 연구에 의해 서구와 우리나라에서 노인이 자녀 가운데 주 수발자로 선호하는 대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딸이나 며느리로부터 수발받을 때 일상생활 의존이 노인에게 미치는 정서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넷째, 사회적 지지의 세 차원 가운데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어떠한 차원도 일상생활 의존이 우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조절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즉, 이 집단에서 우울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 의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한데 사회적 지지가 그러한 영향을 감소시켜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를 보면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며느리 수발노인과 딸 수발노인에서 다 유의미해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수준은 낮았다.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도 두 집단에서 낮은 우울과 관련되었다. 그러나 자녀로부터의 도구적 지지는 두 집단에서 다 우울에 전혀 주효과나 조절효과를 갖지 못하였다. 우울이 정서적 차원이므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나 관계만족도에 반응하고 도구적 지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Krause, 2004).

위에서 요약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의의는 서구와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자녀 수발자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서구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일

상생활 의존노인이 며느리로부터 수발 받을 때보다 딸에게 수발 받을 때 심리적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분석결과에서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이 전체적으로 다 높은 우울수준을 보였지만 특히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경우 우울증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인 노인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우울취약집단으로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자녀와 별거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노인들은 가구형태가 노인단독가구일 가능성이 크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딸이 주 수발자의 역할을 맡고 있고 별거하는 경우 노인의 일상생활 의존 외에 이러한 가구형태에서 우울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높은 일상생활 의존정도는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우울을 초래하므로 일상생활 의존이 심할수록 우울증의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영향이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더 커서 이 집단에서 일상생활 의존이 심한 노인은 우울증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심각하더라도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지가 풍부하게 제공되면 우울수준은 낮았고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도 약하나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 집단에서는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활성화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노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계를 조성하게 함으로써 심한 일상생활 의존이 노인에게 우울증을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Suitor 외(2012)은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자녀가 노인의 심각한 일상생활 의존에 대해 이해·공감하고 안심시켜주며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울증을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은 우울수준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가 조절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일상생활 의존으로 인한 우울을 막기 위한 사회적 지지의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심각한 일상생활 의존이 높은 우울을 초래하는 것을 감소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데이터의 다른 사회적 지지 관련 변수들(친구로부터의 지지, 따로 사는 자녀와의 접촉빈도 등)에 대해 조절효과를 검증해보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서구의 연구에서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의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가 확인된 자존감, 지배감(Brown, 2007) 등 심리적 변인들은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분석할 수 없었다. 공적 서비스의 효과도 검증을 시도하였으나 결측치가 너무 많았다. 데이터에 포함된 사회적 지지 변수들의 측정이 구체적인 항목들로 구성된 정교한 척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계이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만 명이 넘는 전국 규모의 데이터지만 자녀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표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을 선택해서 표본을 확보하니 표본의 크기가 작아졌다. 이러한 점들은 모두 이차 데이터 분석에 의한 한계로 추후 연구에서 자녀 수발대상 노인에 초점을 맞춰 더 큰 표본을 확보하고 심리적인 변인들을 조사항목에 포함시키며 사회적 지지 변수들에 대한 측정도 정교하게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인정은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사회복지학,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가족복지이며 현재 노인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의 차이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ijlee@duksung.ac.kr)

## 참고문헌

- 기백석(1996).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 연구. *신경정신의학*, 35(2), pp.298-307.
- 김윤정, 최혜경(2001). 가족부양이 장기요양보호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 노년학*, 21(2), pp.99-112.
- 엄태완(2007). 노인 자살관련 요인: 무망감과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통제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pp.355-379.
- 최정혜(2009). 한국과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부양행동 비교연구. 29(2), pp.611-627.
- Brown, E. (2007). Care recipients'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ole of sense of control and caregiver type. *Aging & Mental Health*, 11(4), pp.405-414.
- Carpenter, B. D. (2001). Attachment bonds between adult daughters and their older mothers: associations with contemporary caregiving.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6B(5), pp.257-266.
- Carstensen, L. (1992). Social and emotional patterns in adulthood: support 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Psychology and Aging*, 7, pp.331-338.
- Diwan, S., Jonnalagadda, S. S., Balaswamy, S. (2004). Resources predictin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during the experience of stress: a study of older Asian Ind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The Gerontologist*, 44(5), pp.605-614.
- Gallant, M., Spitze, G., Prohaska, T. (2007). Help or hinderence? How family and friends influence chronic illness self-management among older adults. *Research on Aging*, 29, pp.375-409.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Jang, Y., Haley, W. E., Small, B. J., Mortimer, J. A. (2002). The role of mastery and social resource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disability and depression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42(6), pp.807-813.

- Katz, S. (1993). Assessing self-maintenance: activities of daily living, mobility and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 Society*, 31, pp.721-727.
- Krause, N. (2004). Lifetime trauma, emotion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44(5), pp.615-623.
- Krause, N. (2005). Exploring age differences in the stress-buffering function of social support. *Psychology and Aging*, 20(4), pp.714-717.
- Kuzuya, M., Enoki, H., Hasegawa, J., Izawa, S., Hirakawa, Y., Shimokata, H., Iguchi, A. (2011). Impact of caregiver burden on adverse health outcomes in community dwelling dependent older care recipient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9(4), pp.382-391.
- Lee, I. (2009).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oldest ol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0(4), pp.405-430.
- Lee, E., Spitze, G, Logan, J. R. (2003). Social support to parents-in-law: the interplay of gender and kin hierarch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 pp.396-403.
- Lee, Y., Sung, K. (1995) Cultural influences on caregiving burden: cases of Koreans and American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6(2), pp.125-141.
- Lyons, K. S., Zarit, S. H., Sayer, A. G., Whitlatch, C. (2002). Caregiving as a dyadic process perspectives from caregiver and receiver.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57B(3), pp.195-204.
- Merrill, D. M. (1993). Daughter-in-law as caregivers to the elderly. *Research on Aging*, 15(1), pp.70-91.
- Park, M. (2009). Negative life stressors and suicide ideation in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 compensatory and buffer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2, pp.199-214.

- Park, K., Voonchin, P., McNally, J., Sun, R. (2005). Diversity and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elderly parent-adult child relations in Korea. *Journal of Cross Cultural Gerontology*, 20, pp.285-305.
- Peters-Davis, N., Moss, M.S., Pruchno, R. A. (1999). Children-in-law in caregiving families. *The Gerontologist*, 39(1), pp.66-75.
- Pruchno, R. A., Burant, C. J., Peters, N. D. (1997). Understanding the well-being of care receivers. *The Gerontologist*, 37(1), pp.102-109.
- Rossi, A. S.,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Rowe, J. L., Conwell, Y. (2006). Social support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adults using home healthcare service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9), pp.758-766.
- Sheikh, J., Yeasavage, J. A.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Clinical Gerontologist*, 5(1/2), pp.165-173.
- Shuey, K., Hardy, M. A. (2003). Assistance to aging parents and parents-in-law: does lineage affect family allocation deci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pp.420-430.
- Silverstein, M., Chen, X., Heller, K. (1996). Too much of a good thing?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pp.970-982.
- Suitor, J. J., Gilligan, M., Pillemer, K. (2012). The roles of violated caregiver pre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when older mothers need assistance. *The Gerontologist*, 53(3), pp.388-396.
- Walker, A. J., Martin, S. S. K., Jones, L. L. (2002). The benefits and costs of caregiving and carereceiving for daughters and mothers. *Journal of Gerontology:Social Sciences*, 47(3), pp.130-139.

## Differences in the Level and Correlates of Older Care Recipients' Depression among Those Cared by Daughters and Daughters-in-law

Lee, Injeong

(Duksung Women's University)

---

Some Western studies have shown that receiving care from adult children has nega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care recipients. It is also indicated that care recipients' depression varies by caregiver typ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among elders cared by daughters and daughters-in-law. Especially, it tried to test if social support(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from children, elder's satisfaction with the filial relationship) attenuated the influence of dependency on depression in these two groups. 293 older care recipients (157 elders cared by daughters-in-law, 136 elders cared by daughters) selected from the data of 2011 Survey of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were used for chi-square test, t-test,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suggested that the level of depression was higher in elders cared by daughters than in elders cared by daughters-in-law. It was also found that the greater dependenc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level of depression in both groups. Finally, the harmful effect of dependency on depression was moderated by emotion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and marginally by elder's satisfaction with the filial relationship in those cared by daughters-in-law. But, social support has no moderating effect in those cared by daughte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including attention to elders cared by daughters for their high vulnerability to depression, keeping an eye on care receiving elders with greater dependency as a high risk group for depression, increasing emotion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to reduce depression in those cared by daughters-in-law were discussed.

---

**Keywords:** Elders Cared by Daughters-in-law, Elders Cared by Daughters, Depression, Dependency, Social Support